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미국도 주식선물시장 열렸다

CME 개별주식선물 시장

- 7월27일 미국 CME에서 55개 주식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시장이 개장됨. 거래단위가 1/10 수준인 Micro 주식선물도 상장됨.
- 개별주식선물의 레버리지 효과와 낮은 비용으로 Short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등 개별기업 단위의 이벤트에 대한 세밀한 대응이 가능함.
- 매일 23시간 거래와 현금결제 방식으로 국내투자자의 미국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23시간 거래와 현금결제방식의 미국 개별주식선물

CME 개별주식선물시장 개장: 7월27일 미국 파생상품거래소 CME에서 애플과 엔비디아, SpaceX와 테슬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 시장을 개설하였음. 기초자산 55종목을 대상으로 한 Standard 상품(계약당 100주)과 22종목을 대상으로 한 Micro 상품(계약당 10주)가 상장되었음.

매일 23시간 거래가 가능하며, 미국 주식옵션(현물결제)과 달리 현금결제 방식을 취함. 분기월 단위로 거래월물이 상장되며, 분기월 3번째 금요일이 최종거래일임.

초기 유동성 확보가 관건: 미국의 개별주식선물시장은 2010년대 OneChicago에서 일시적으로 거래되었지만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음. 반면 주식옵션과 ETF는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과 시장참여로 급격히 성장하였음.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지(위탁증거금률 최소 16.5%, 레버리지 6배)와 현금정산, 미국의 주요 빅테크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채택한 상품 라인업 등으로 인해 미국 개인투자자의 개별주식선물 시장참여가 기대됨. 매일 23시간 거래로 미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아시아권 포함) 역시 개별주식선물을 활용하여 기업이벤트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정교한 헤지수단 및 저비용의 전략적 투자수단의 확보라는 점에서 미국의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주간 KOSPI200 전망:** 과매도권에서의 기술적 반등 모색

KOSPI200 주간 예상 밴드: 800pt (7/29 장중 저점)

~1,180pt (지수 60주 이평선)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주간 선물/옵션 사항

2분기 상승폭을 모두 훼손하였다, 그리고 급격한 반등을 보인 시장

- 충격적인 가격조정과 불안정한 투자심리
 - KOSPI200, 연초(2월) 고점(950pt)까지 하향돌파당하는 가격조정 진행
 - KOSDAQ150, 2025년 저점(1,050pt)에 육박하는 하락추세

KOSPI200, 단순 가격조정에서 추세의 반전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 KOSPI200, 지수 60주 이평선마저 지지력 상실
 - 지수 단중기 일별 이동평균선 역배열 형성
 - 단기 침체권 진입 & 거래량 급증으로 반등모멘텀 모색
- 외국인, KS200선물 7월 10조원 순매수
 - 주가 하락에 따른 매도헤지 청산 및 추세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선물매수
 - 외국인 선물매수로 9월물 선물 시장베이시스 확대

KOSDAQ150, 지지력 상실로 약세흐름 강화

- KOSDAQ150, 1500pt와 1300pt 지지력 붕괴되면서 하락추세 강화되는 공포 국면
 - 2025년 저점(1,050pt) 위협하는 과도한 하락추세
 - KOSPI 반도체업종의 상승반전 나타나야 KOSDAQ 반전기회 모색 가능할 것
- 저가 매수를 위한 ETF 설정 등 기회 모색하는 스마트머니 나타나
 - 7월, 금융투자의 KOSDAQ 0.6조원 순매수
 - KOSDAQ 관련 ETF 순자금유입, 7월중 1.5조원

과매도권에서의 기술적 반등 모색

- KOSPI200 예상 지수대 참조
 - : 저점 - 800pt (7/29 장중 저점 구간)
 - : 고점 - 1,180pt (지수 60주 이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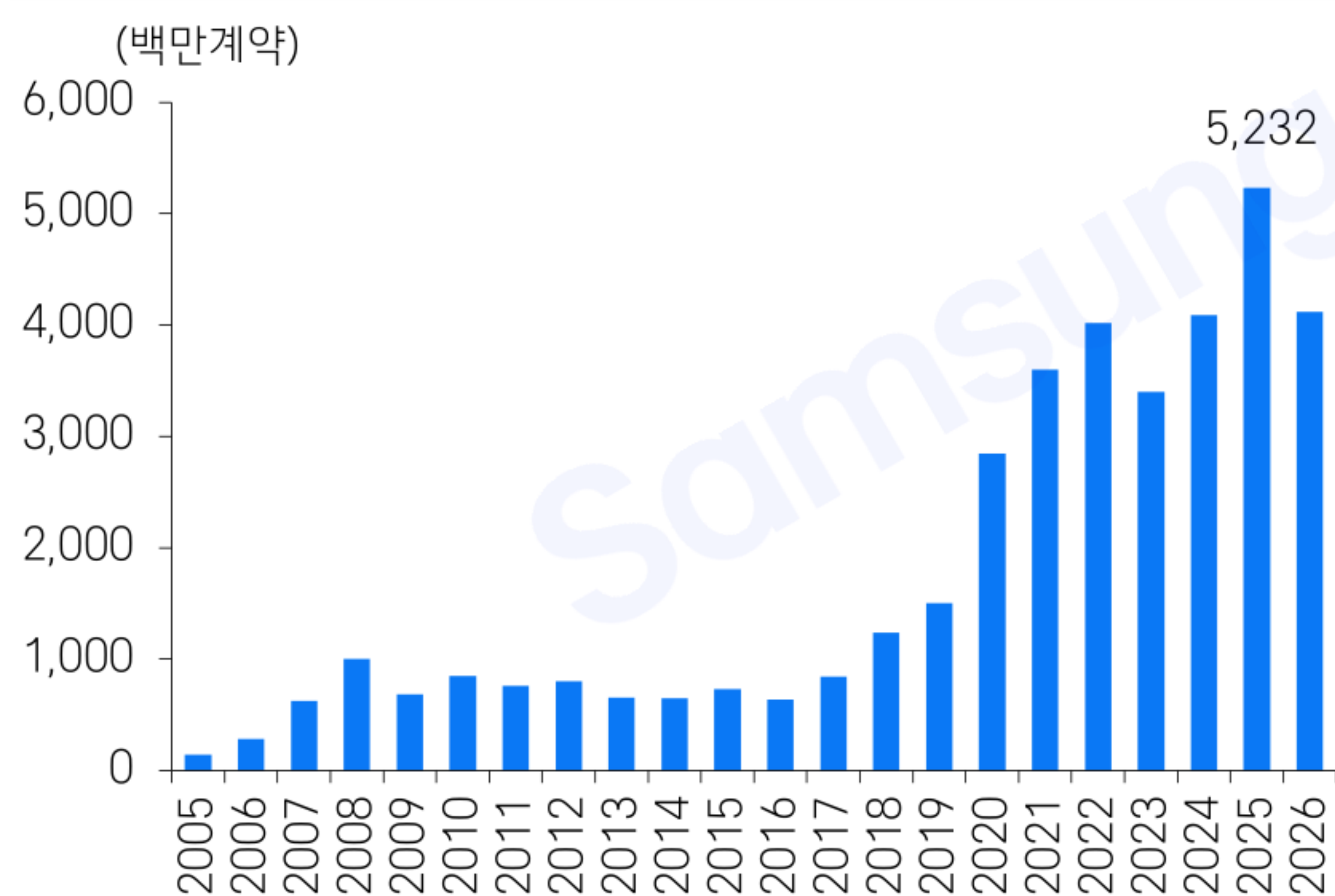
미국도 주식선물시장 열렸다

CME 개별주식선물시장 개설

글로벌 개별주식선물 거래 증가세: FIA(Futures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된 개별주식선물 거래량은 52억계약을 집계됨. 같은 해 주가지수선물의 거래량이 68억계약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Index Futures와 Single Stock Futures의 거래규모가 동등한 수준으로 판단됨. 또한 2020년 글로벌 개별주식선물 거래량이 28억계약으로 5년만에 거래량이 84% 증가하였음.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개별주식선물 거래량이 41억계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연말에는 80억계약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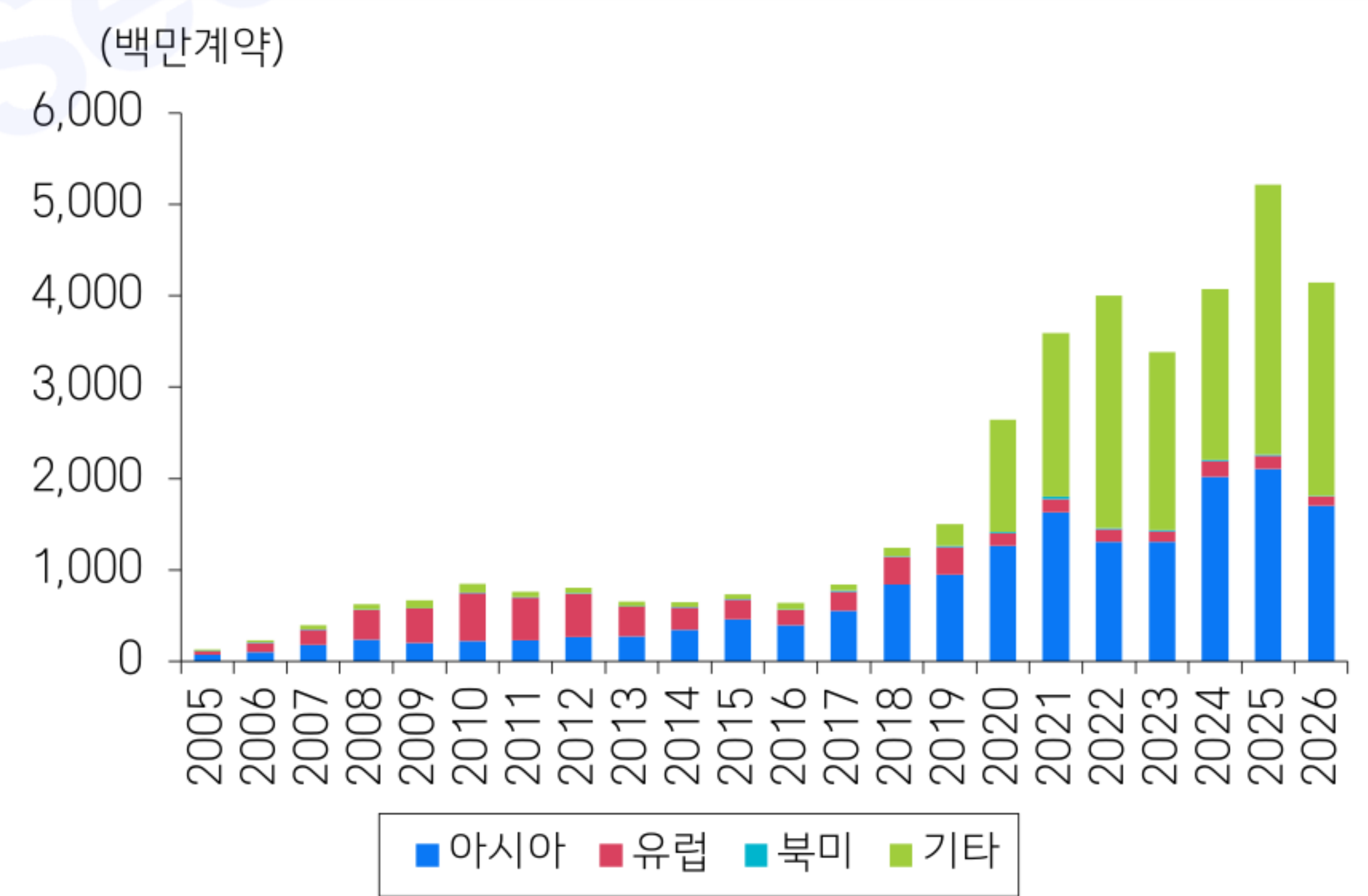
대륙별로 개별주식선물시장의 성장세를 보면, 2000년 중반에는 Euronext와 독일거래소 등에서 주식선물 거래가 활발하였지만 2010년 중반부터 아시아권(인도, 대만, 한국 등)에서 개별주식선물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2020년대 들어서는 남아공과 터키, 러시아 등 기타지역에서 개별주식선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 대체로 자본시장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신흥시장(인도, 터키, 남아공 등)에서 개별주식선물의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반면 한국과 대만에서의 개별주식선물 시장은 지수선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

글로벌 개별주식선물 연간 거래량 추이



참고: 2026년 6월 현재
자료: FIA, 삼성증권

대륙별 개별주식선물 연간 거래량 추이



참고: 2026년 6월 현재, 남미 제외, 기타-중동/남아공/러시아 등
자료: FIA, 삼성증권

CME의 개별주식선물시장 개장: 미국의 개별주식선물은 CBOE 산하의 OneChicago에서 2013년까지 거래되었지만 이후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개별주식선물의 거래중단이 시행됨. 미국의 경우 대차거래와 Short Selling이 원활하고, 개별주식옵션시장의 발달과 ETF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음.

2025년 이후 가상자산시장에서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선물(Perpetual Futures)과 토큰증권이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국의 정규거래소에서도 개별주식선물 거래를 재추진하였음. 감독당국(SEC)등과의 협의를 통해 CME가 2026년 7월27일 개별주식선물시장을 개설하게 되었음.

기초자산 52개 & Micro 22개 개별주식선물: CME는 7월27일부터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와 마이크로 등 미국의 대형주 55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tandard Single Stock Futures’와 이중 22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Micro Single Stock Futures’를 상장하였음. Standard 상품은 거래승수가 계약당 100주이며, Micro 상품은 거래승수가 계약당 10주임. Micro 상품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반면 Standard 상품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음.

분기월(3,6,9,12) 단위로 거래월물이 상장되며(7월말 현재 9월물과 12월물 상장되었음), 매 분기월 3번째 금요일이 최종거래일임. 정산방식은 현금결제를 채택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음. 거래시간이 획기적임. CME Globex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23시간(현지시간 16시~17시 정산을 위해 일시적 거래 중단) 거래가 가능함.

CME 개별주식선물 거래제도

구분	Single Stock Futures	Micro Single Stock Futures
기초자산	55개 개별주식	22개 개별주식
거래승수	계약당 100주	계약당 10주
최소호가단위	0.01pt (=1.0달러)	0.01pt (= 0.1달러)
거래월물	분기월물(3,6,9,12) 중 연속 2개	분기월물(3,6,9,12) 중 연속 2개
최종거래일	매 분기월 3번째 금요일	매 분기월 3번째 금요일
거래시간	(한국시간) 08:00~익일 07:00 매일 23시간 거래 -	(한국시간) 08:00~익일 07:00 매일 23시간 거래
정산방식	현금결제	현금결제

자료: CME

CME 개별주식선물 기초자산

NAME	Micro 여부	NAME	Micro 여부	NAME	Micro 여부
ABBVIE	-	CONOCOPHILLIPS	-	NVIDIA	0
ADOBE	-	COSTCO	-	ORACLE	-
AMD	0	ELI LILLY	-	PALANTIR	0
ALPHABET	0	EXXON	0	PALO ALTO	-
AMAZON	0	HOME DEPOT	-	PEPSICO	-
AMGEN	-	INTEL	0	PFIZER	0
APPLE	0	IBM	-	PROCTER & GAMBLE	-
APPLIED MATERIALS	-	JOHNSON & JOHNSON	-	PROLOGIS	-
BoA	-	JPMORGAN	0	QUALCOMM	-
BERKSHIRE	-	LOCKHEED MARTIN	-	SALESFORCE	-
BOEING	0	MASTERCARD	-	SPACEX	0
BOOKING	-	MCDONALD'S	-	STARBUCKS	-
BROADCOM	0	MERCK	-	TESLA	0
CATERPILLAR	-	META	0	TEXAS INSTRUMENTS	-
CHEVRON	-	MICRON TECH	0	UNITEDHEALTH	-
CISCO	0	MICROSOFT	0	VERIZON	-
COCA-COLA	-	NETFLIX	0	VISA	-
COMCAST	-	NEWMONT	0	WALMART	0
				WALT DISNEY	-

자료: CME

Micro 개별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은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과 브로드컴, 인텔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마 이크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주이자 Big Tech 위 주로 선별되었음. 향후 기초자산의 확대는 상장 상품의 유동성 확보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짐.

개별주식선물 초기거래 미흡: 미국 장내파생상품 중 개별주식옵션의 경우 투자자의 경험과 활용수요가 매우 높은 편 임. 예를 들어 SpaceX의 경우 신규상장 직후 SpaceX의 주식옵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음. 상장후 1.5개월 동안 Call옵션 1,448만계약과 Put옵션 1,133계약이 거래되었음.

SpaceX 주식옵션 거래 규모

	Call 옵션	Put 옵션
일평균 거래량	46.7 만계약	36.5 만계약
누적 거래량	1,448 만계약	1,133 만계약
최대거래량	103 만계약 (6/18)	92 만계약 (6/18)
7월30일 거래량	456,031 계약	229,611 계약

참고: 거래기간 6/16 ~ 7/3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반면 개별주식선물시장의 유동성은 아직 미진한 편임. 주식옵션과 달리 투자자의 거래경험이 일천한데다 기관투자자 중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내부제약이나 기존 거래관계(Hedge Fund와 PBS의 레버리지 약정 등)로 인해 개별주식선물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7/27~7/30(4영업일)까지의 거래를 보면, Micro 상품의 거래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일부 기술주에 집중 되는 거래를 보임.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거래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결 제약정 기준으로 애플과 아마존을 포함하여 다수 종목이 100계약을 상회하는 수준임.

CME 개별주식선물(Micro)의 거래현황

Micro Futures	Open Interest(계약)	Volume(계약)
Micro Apple Futures	492	654
Micro Intel Corp Futures	230	396
Micro NVIDIA Futures	61	232
Micro Advanced Micro Devices Futures	117	229
Micro Amazon.com Futures	178	228
Micro Exxon Mobil Futures	114	215
Micro Tesla Futures	90	209
Micro Walmart Futures	78	173
Micro Alphabet Futures	77	156
Micro SpaceX Futures	77	148
Micro Cisco Systems Futures	90	135
Micro Palantir Technologies Futures	46	122
Micro Newmont Futures	46	121
Micro Microsoft Futures	101	119
Micro Netflix Futures	73	98
Micro Broadcom Futures	40	60
Micro Bank of America Futures	51	51
Micro Pfizer Futures	17	35
Micro Meta Platforms Futures	14	19
Micro Boeing Futures	9	9

참고: 7/27 ~ 7/30 4일 누적 거래량, 미결제약정은 7월29일 기준, 거래량 기준
자료: CME

거래승수가 계약당 100주인 Standard 상품의 거래는 애플과 엔비디아, 넷플릭스 주식선물이 4영업일 동안 누적 100계약을 상회할 뿐 여타 종목들의 거래는 아직 부진함. 미결제약정 역시 많은 종목이 10계약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 테스트 차원의 매매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CME 개별주식선물(Standard)의 거래현황

Futures	Open Interest(계약)	Volume(계약)	Futures	Open Interest(계약)	Volume(계약)
Apple Futures	59	273	Tesla Futures	8	13
NVIDIA Futures	49	175	Intel Corp Futures	11	12
Netflix Futures	11	101	Prologis Futures	9	11
Comcast Futures	10	64	Visa Futures	0	10
Amazon.com Futures	7	43	Bank of America Futures	4	10
Microsoft Futures	11	39	Applied Materials Futures	8	10
Broadcom Futures	7	35	Cisco Systems Futures	0	6
Alphabet Futures	5	27	Pfizer Futures	2	6
Boeing Futures	7	21	Johnson & Johnson Futures	0	3
Walmart Futures	10	18	Booking Holdings Futures	0	2
SpaceX Futures	6	16	Home Depot Futures	0	2
Micron Technology Futures	5	16	Oracle Futures	0	2
ConocoPhillips Futures	6	15	Walt Disney Futures	0	2
Adobe Futures	5	14	AbbVie Futures	0	1
Advanced Micro Devices Futures	5	14	Salesforce Futures	0	1

참고: 7/27 ~ 7/30 4일 누적 거래량, 미결제약정은 7월29일 기준, 거래량 기준, 거래량 없는 종목은 미표시
자료: CME

개별주식선물 시장성 충분: 2010년대 미국 OneChicago의 주식선물시장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와 개별주식옵션의 풍부한 유동성, 현물주식에 대한 Short Selling 원할 등으로 2026년 CME 개별주식선물시장의 초기 유동성 확보가 부진한 편임. 일반 주식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옵션과 달리 파생계좌(Futures account)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것도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임.

다만 CME는 매일 23시간의 거래시간을 구축하고 미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까지 시장에 유인하고 있음. 더구나 장마감후 발표되는 실적보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음. 또한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기초자산의 라인업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 이미 주요 헤지펀드가 실행하고 있는 미국채 Basis Trading과 동일하게 개별주식 Basis Trading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대세로 자리잡은 ETF와 ODTE 지수옵션은 포트폴리오 투자인 반면 개별주식선물은 포트폴리오 안의 개별주식에 대해 세분화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 주식의 이벤트 대응에 더욱 효과적일 것임. 더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영향력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레버리지 기능이 내재된 개별주식선물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Bloomberg에 따르면, CME는 주식옵션 거래량의 1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쟁력있는 시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자생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국내투자자의 미국 개별주식선물 활용방안: CME에 따르면, 미국 개별주식선물의 증거금률은 7월 현재 최소 16.5%(유지증거금 15.0%)에서 최대 30.8%(유지증거금 28.0%, SpaceX) 수준으로 한국의 주요 대형주 주식선물 위탁증거금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16.5% 증거금 기준 6.0배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높은 레버리지 효과는 투자자본의 효율성을 모색할 수 있음.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현물취득시에는 현금100%가 필요하지만 엔비디아 주식선물은 증거금 16.5%으로 투자할 수 있음. 투자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수단이 확보되었음.

미국의 주식옵션은 American Options과 현물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내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함. 반면 CME의 개별주식선물은 현금결제를 취하고 있어 국내 주식파생상품과 동일한 구조로 거래의 편의성이 높은 편임.

미국 주식형 ETF의 설정과정에서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IndexFutures로 충분히 헤지하기 어려운 테마형/섹터형/전략형 ETF의 경우 포트폴리오와 헤지수단의 미스매칭에 따른 시장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개별주식선물을 활용하여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일부 헤지하여 시장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국내외 멀티 Long/Short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가 해외 주식에 대한 Short 포지션을 고비용의 Swap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개별주식선물을 이용한 Long/Short 포트폴리오를 구현할 수 있음. 개별주식선물을 이용한 Overlay전략(Portable alpha 등)을 취할 수도 있음.

미국 개별주식선물 거래위험: 미국 개별주식선물 거래시에는 기초자산(현물주식)에 대한 권리변동이나 거래정지 사유 발생시 거래중단될 가능성과 함께 현물주식의 배당발생시 선물투자자의 '배당간주세' 부과 가능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기초자산의 권리변동(합병/분할 등)이 발생할 경우 선물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존재함. ② 기초자산의 거래정지(부정/상장폐지/급격한 주가변동 등) 조치시 선물거래 동반 중단됨. ③ 미국의 연방세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인 주식의 배당발생시 선물거래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현물 배당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배당간주세(Dividend Equivalent) 부과 가능.

Market Data (7월 31일 현재)

KOSPI200 Big & Mini 선물 거래 동향 (주간+야간)

(계약수)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Big선물 당일 순매수	92	(4,958)	5,817	(37)
Big선물 누적포지션*	42,690	(23,960)	(8,867)	(568)
Mini선물 누적포지션**	107,155	(105,211)	1,615	(389)
전체 누적포지션***	64,121	(45,002)	(8,544)	(646)

참고: * Big선물 누적포지션은 2026/6/12부터 순매매의 누적임
** Mini선물 누적포지션은 2026/7/10부터 순매매의 누적임
*** 전체 포지션은 Big선물누적 + Mini선물누적/5로 산출함
자료: KRX, 삼성증권

Big선물 최근월물 기술적 지표 (pt, %)

피봇 2차 지지	1,107.02	지수 3일 MA	932.30
피봇 1차 지지	1,068.83	지수 5일 MA	938.41
피봇 포인트	1,002.92	지수 10일 MA	1,023.45
피봇 1차 저항	964.73	지수 20일 MA	1,106.01
피봇 2차 저항	898.82	볼린저밴드 상단	1,154.30
최근 5일 고가	1,096.90	볼린저밴드 하단	892.60
최근 5일 저가	823.00	%b 지표	0.53

참고: 지수 이동평균선은 전일 종가를 금일 개장 가격으로 의제하여 산출. 볼린저 밴드는 지수 1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함
자료: KRX, 삼성증권

Volatility Data (%)

(대표) Imp. Vol 현재	84.35	His. Vol 현재	100.80
Imp. Vol Max (5일 중)	93.27	His. Vol 5일전	86.62
Imp. Vol Min (5일 중)	82.68	His. Vol 20일전	100.80
Imp. Vol Max (20일 중)	93.27	His. Vol Max(20일중)	79.40
Imp. Vol Min (20일 중)	75.88	His. Vol Min(20일중)	100.80

참고: Historical Volatility는 30일간 수익률의 연율화된 표준편차
자료: KRX, 삼성증권

KOSPI200 Big & Mini 옵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	기타법인
Call	누적 (계약)	3,757	3,991	(2,322)	(1,514)
	누적 (백만원)	3,227	27,829	(17,503)	(4,241)
Put	누적 (계약)	14,110	297	(207)	(2,345)
	누적 (백만원)	17,327	(43,320)	(75)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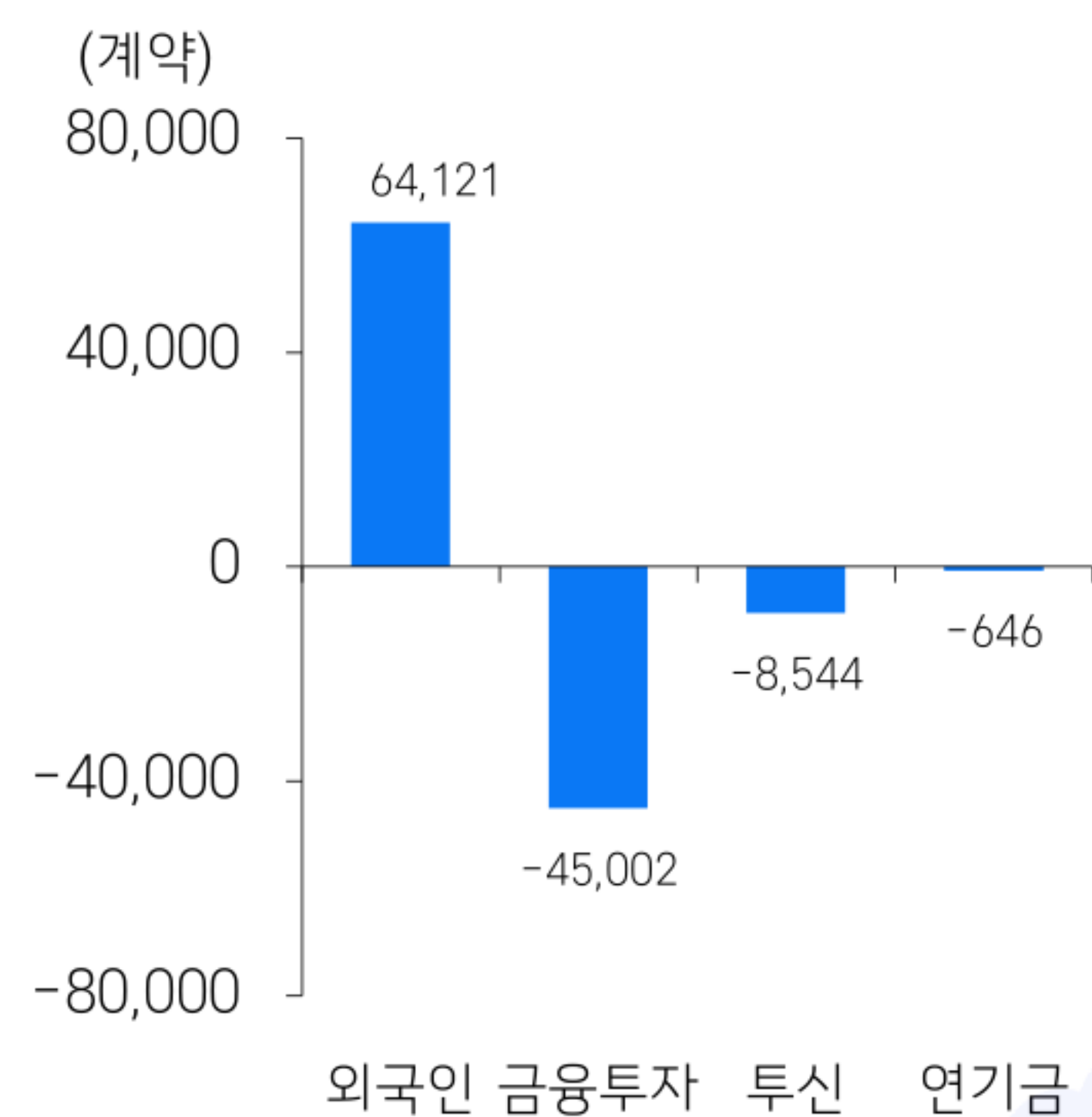
참고: 누적 포지션은 2026/7/10 이후부터 집계함
자료: KRX, 삼성증권

Market Data (7월 31일 현재)

외국인, KOSPI200 선물 7월중 10.0조원 순매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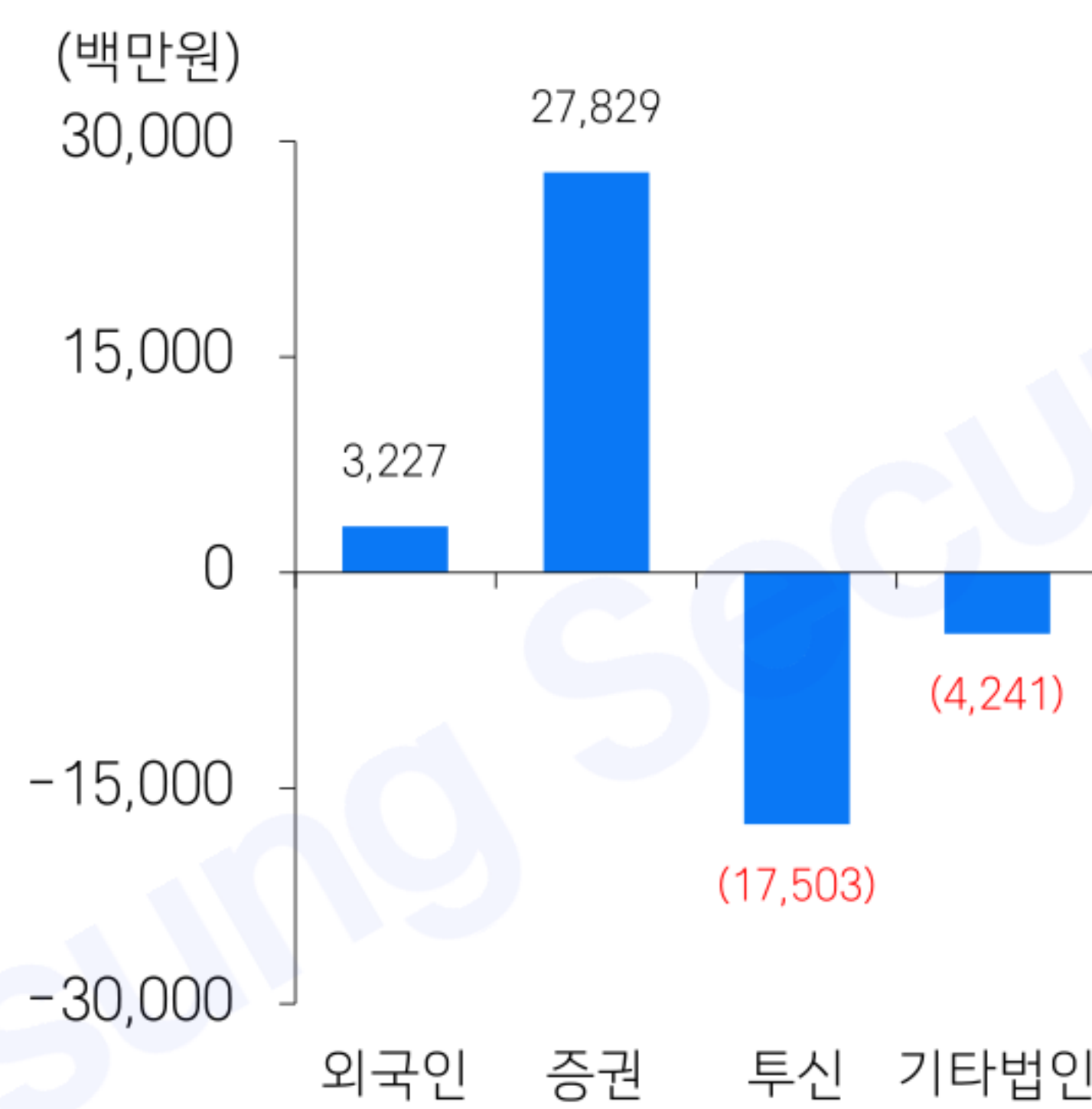
- 외국인, 5월~6월 매도압박에서 7월 들어 순매수로 반전
- 주가 하락반전에 따른 매도헤지 일부 청산
- 변동성 하락반전으로 변동성 헤지한 선물매도 포지션의 청산 포함
- 8월초까지 외국인의 선물매수 유지될 경우 시장반등 주도할 가능성
- 외국인, Put옵션 대규모 순매수 → 기존 매도물량의 환매수 유입
- 외국인, Mini옵션에서는 Call 순매수 & Put 매도로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 형성
- 금융투자, Big옵션에서 Call매수 & Put 매도로 Long Delta 포지션 구축

선물 투자자별 매매동향(Big+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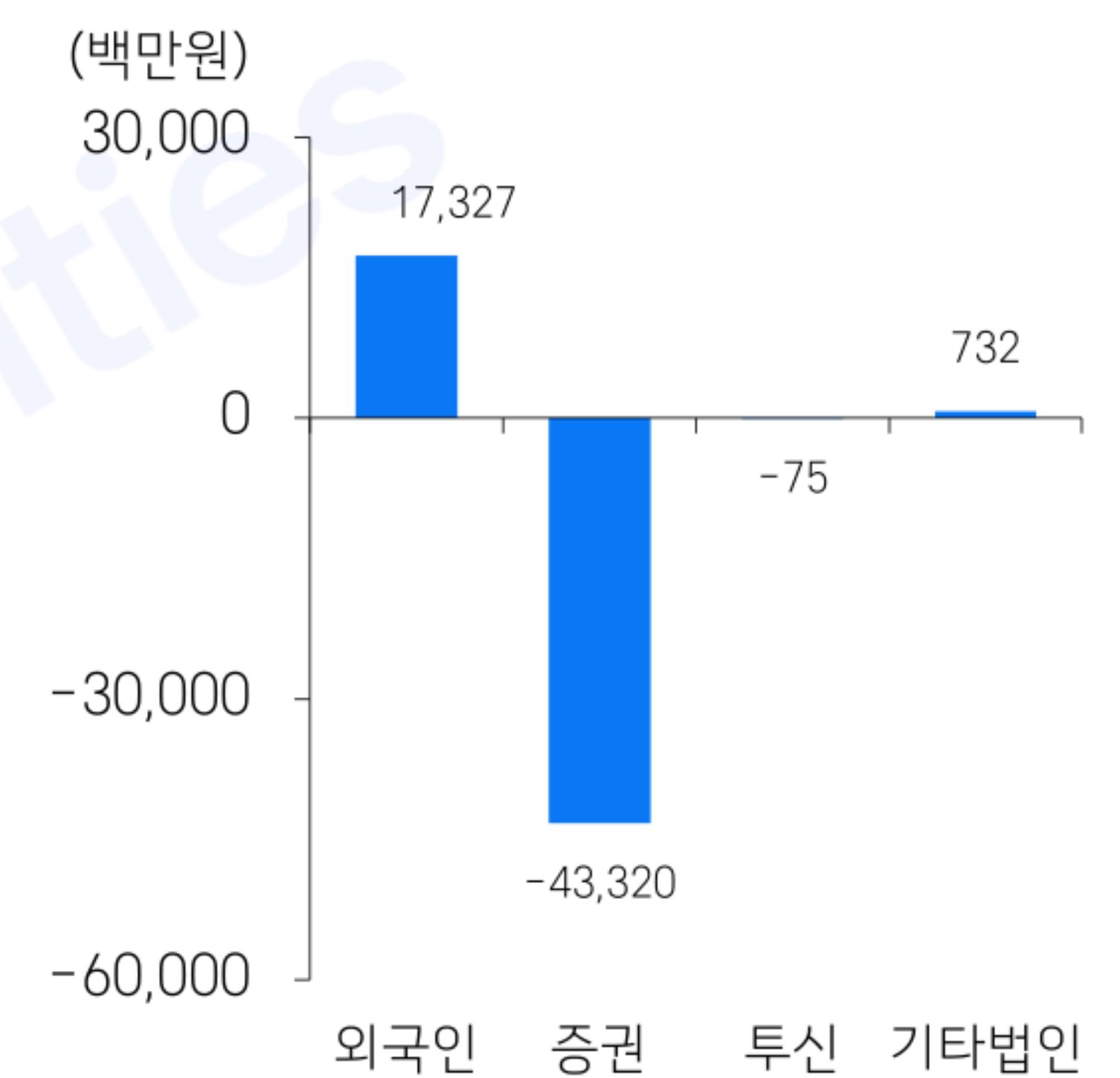
고: 2026/6/12 이후 순매수 누적, 주간+야간 합계
Mini선물은 2026/7/10 이후 순매수 누적
자료: KRX, 삼성증권

Call옵션 투자자별 매매 동향(Big+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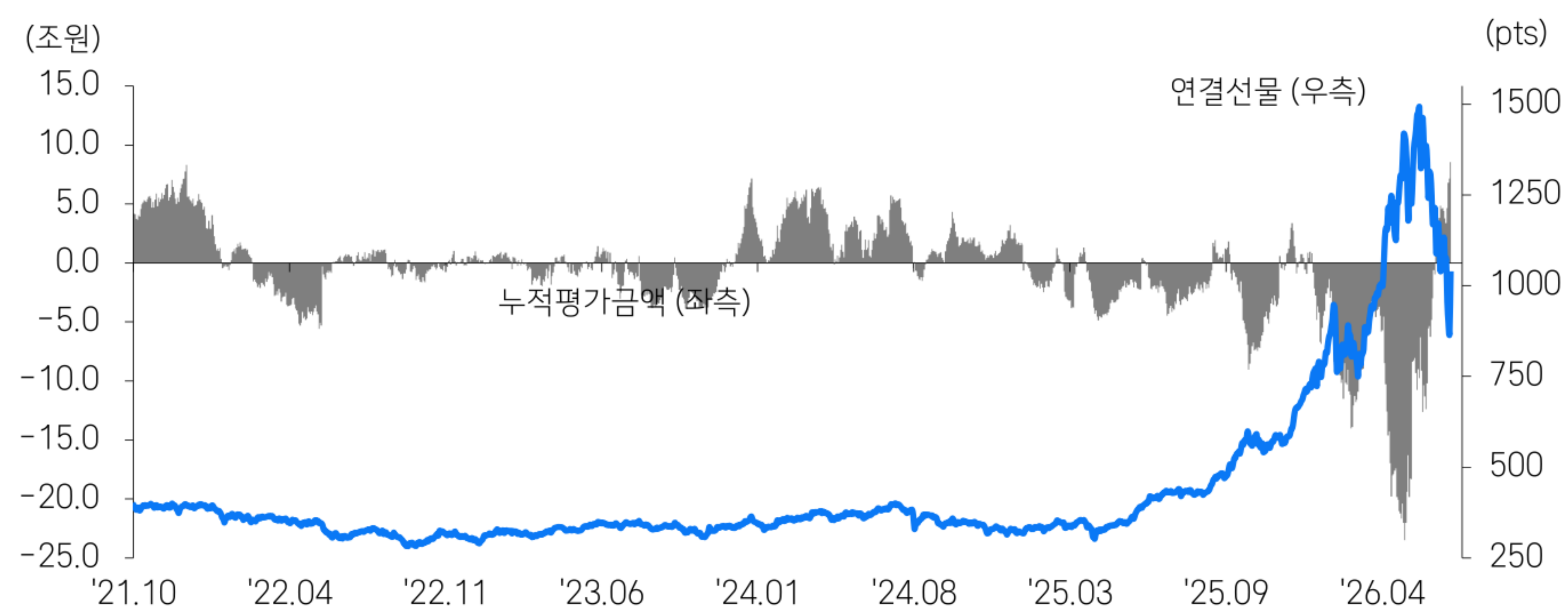
참고: 2026/7/10 이후 순매수 누적, 거래대금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Put옵션 투자자별 매매 동향(Big+Mini)



참고: 2026/7/10 이후 순매수 누적, 거래대금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외국인 투자자 장기누적 선물포지션 (7월 31일 현재 9.1조원 순매수 추정)



참고: 최근월물 기준 정규(Big+Mini) & 야간 & Roll-over 반영, '17년 7월 31일 이후 거래승수 조정 반영
자료: KRX, 삼성증권

삼성 Investment Risk Index

투자위험 평가지표: 삼성 투자위험 지표 (삼성 I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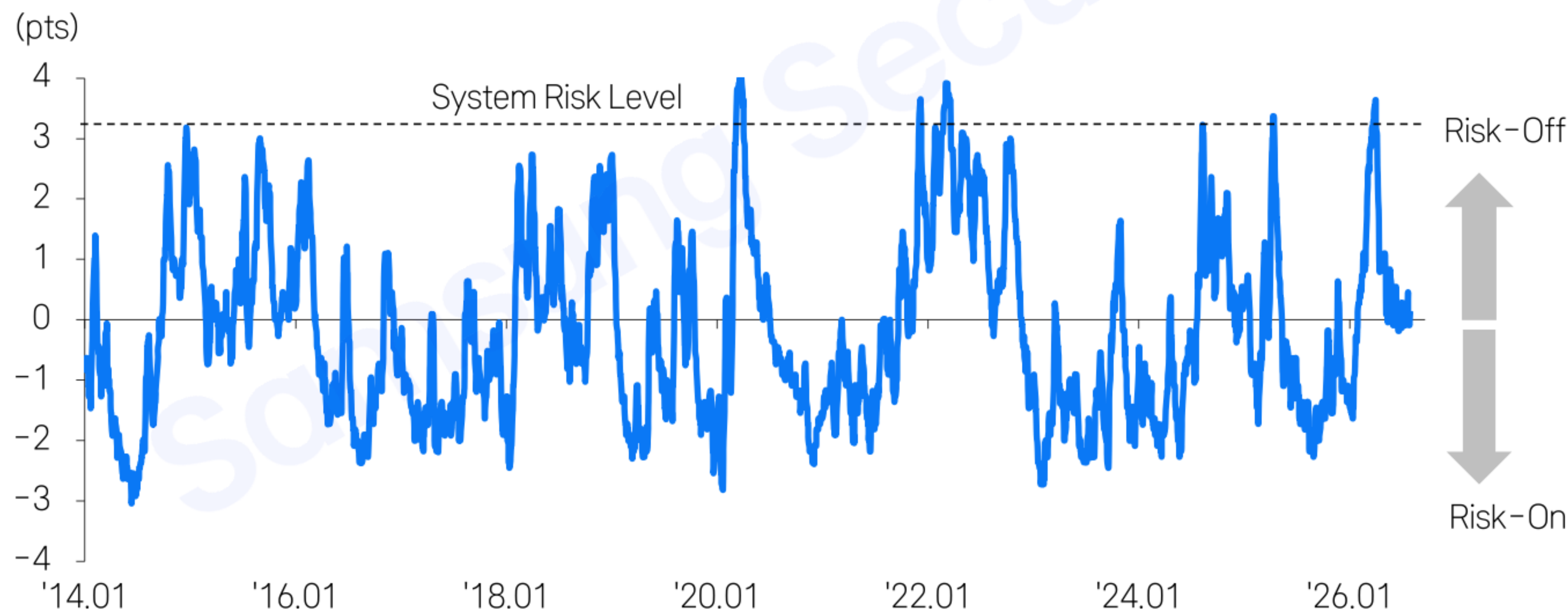
- 자료 참조: 전균, "삼성 Investment Risk Index" (2015년 2월 발간)
- 금융시장 변동성과 자금 동향, 수급 동향을 종합한 투자위험 평가지표 (등락구간 -4pt ~ +4pt)
- 기준선 상회는 Risk-Off 국면, 기준선 하회는 Risk-On 국면
- +3.0pt 이상은 시스템위기 고조

※ 삼성 투자위험 지수는 금융시장의 위험수준 확대/축소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됨
위험 고조 국면(+3pt 이상)에서 역행 전략(주식 매수)을 위한 투자신호로 해석할 경우 투자 성과를 보장할 수 없음

삼성 투자위험 지수, 기준선 상방에서 정체

-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 수준이 6월에 비해 소폭 안정화되었음
- 한국의 주식과 신용위험 변동성 지표가 여전히 삼성투자위험지수를 Risk-Off로 압박함
- 선진국 외환시장 변동성 수준이 극단적인 Risk-On 상태로 전환함
- 글로벌 주식시장의 7월 조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 둔화 진행
- 3분기 Risk-On/Off 불안정한 균형 지속될 수 있어

삼성 투자위험 지수



자료: Bloomberg, KRX, 삼성증권

구성 항목별 월별 일평균 수준

(지수)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7월
VIX(미국)	(0.71)	(0.68)	(1.00)
VKOSPI(한국)	3.38	4.00	3.14
VSTOXX(유럽)	0.95	(0.82)	(1.23)
VXEEM(EM)	2.33	3.73	2.82
MOVE(미국채권)	0.43	(0.45)	(0.05)
FX Vol(환율)	(2.67)	(2.82)	(3.05)
회사채스프레드(한국)	1.71	1.45	3.59
EMBI+ Spread(신흥국)	(2.52)	(2.77)	(1.50)
IG CDX(미국)	0.14	(1.00)	(0.73)
CDS 스프레드(한국)	0.33	(1.00)	(1.00)
Fund Flow(아시아)	2.24	1.36	0.14

참고: 2026년 7월 30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장변동성 관련 Data

VKOSPI, 7월 후반 주식시장 급등락으로 상승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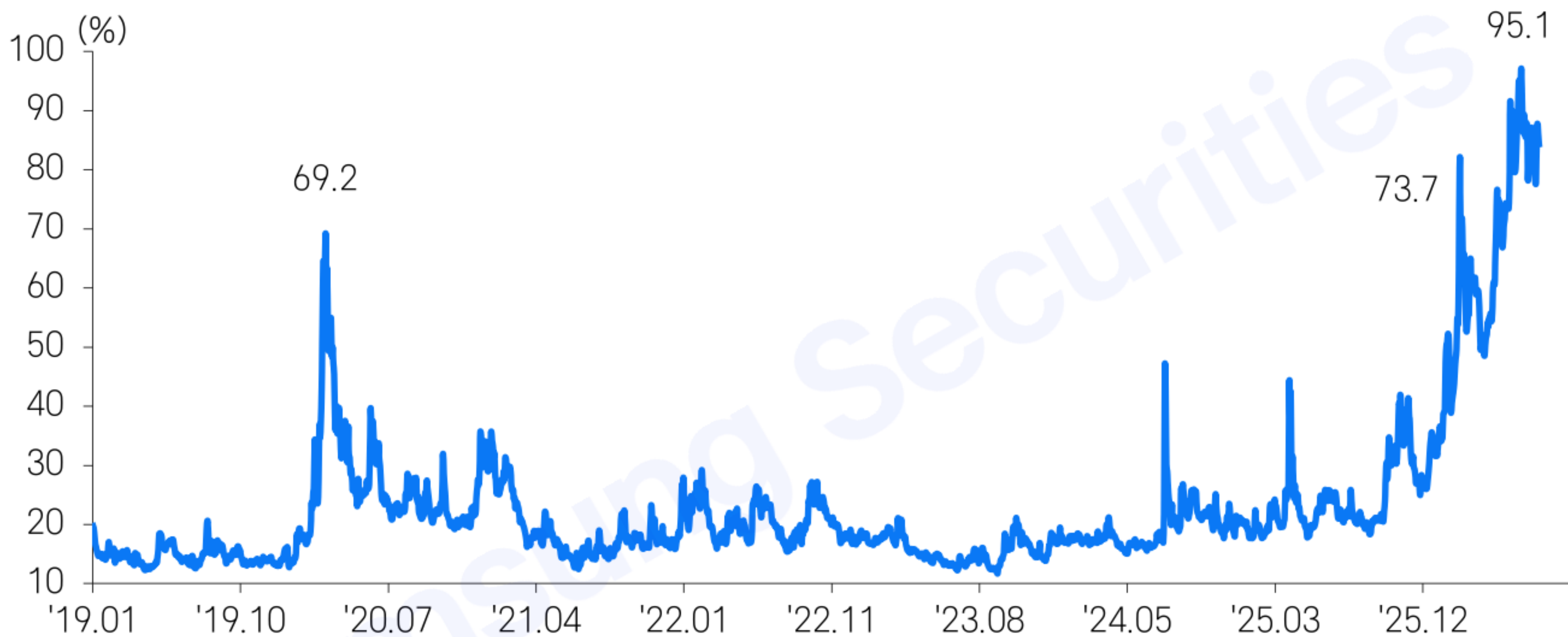
- 7월말 급등락으로 투자위험 극대화
- 주식시장 상승반전시 변동성지수 점진적으로 하강 예상

VKOSPI반영 KOSPI200 예상 등락구간

(pt)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Up	1,058.7	1,063.6	1,067.4	1,070.6	1,073.4	1,075.9
Down	1,034.9	1,030.0	1,026.2	1,023.0	1,020.2	1,017.7

참고: 7월 31일 종가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한국 변동성지수(VKOS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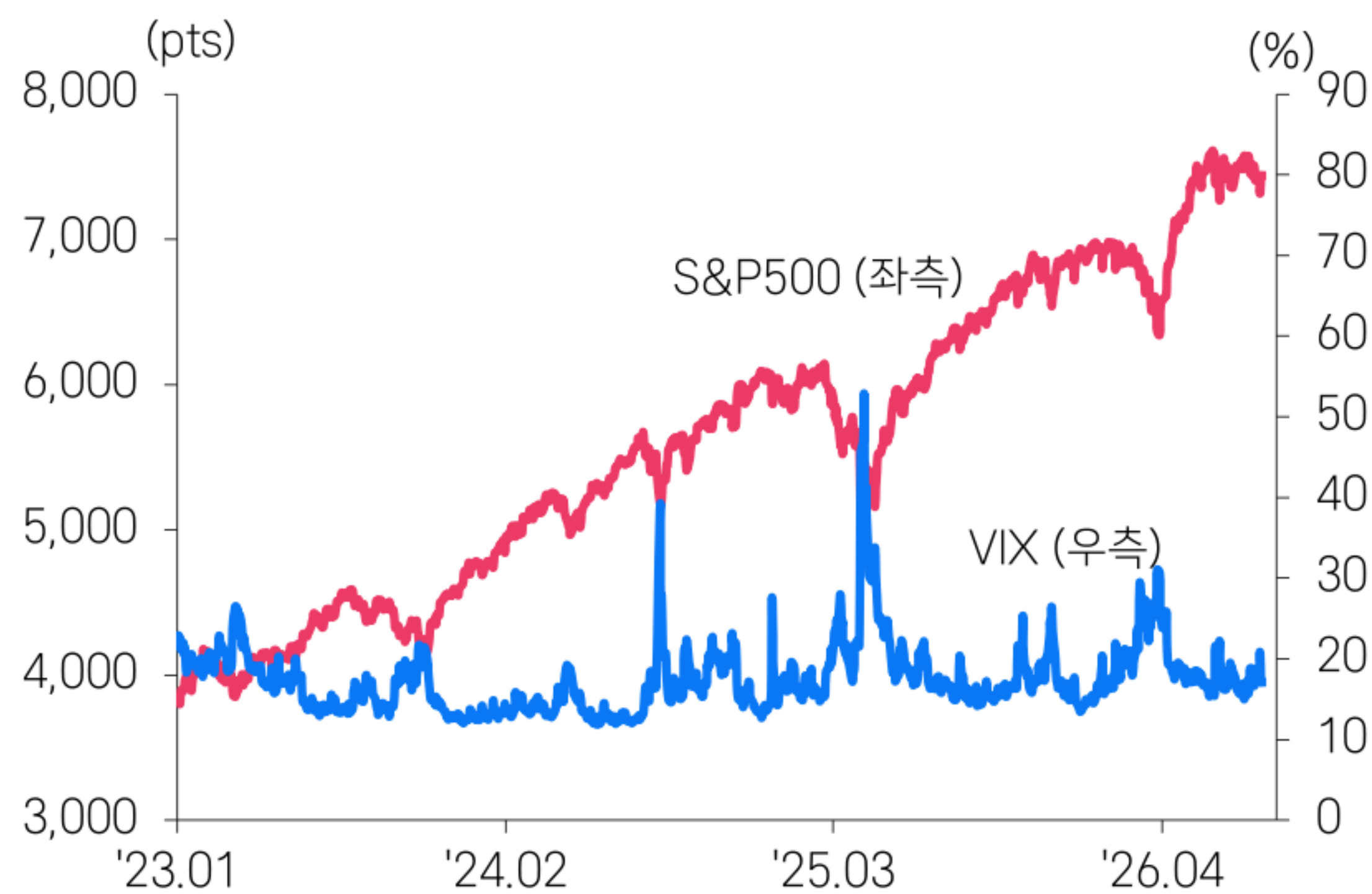


자료: KRX, 삼성증권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VIX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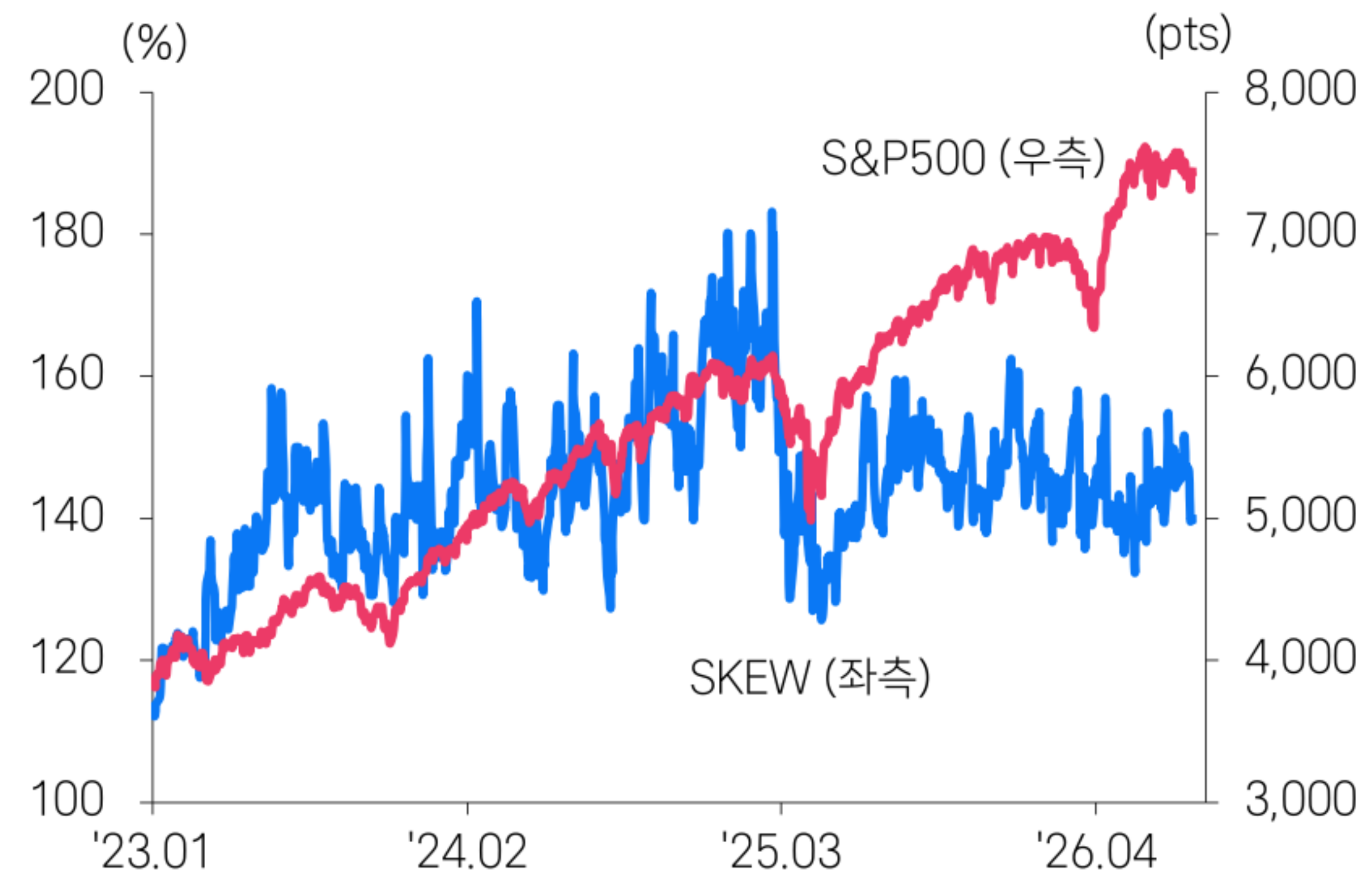
- 반도체 등 AI 관련 빅테크의 불안정한 등락구간
- VIX는 반등하였지만 SKEW(Tail risk 경계지표)는 주식시장 조정으로 완화됨

미국 S&P500과 변동성지수 VIX



자료: CBOE,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S&P500과 SKEW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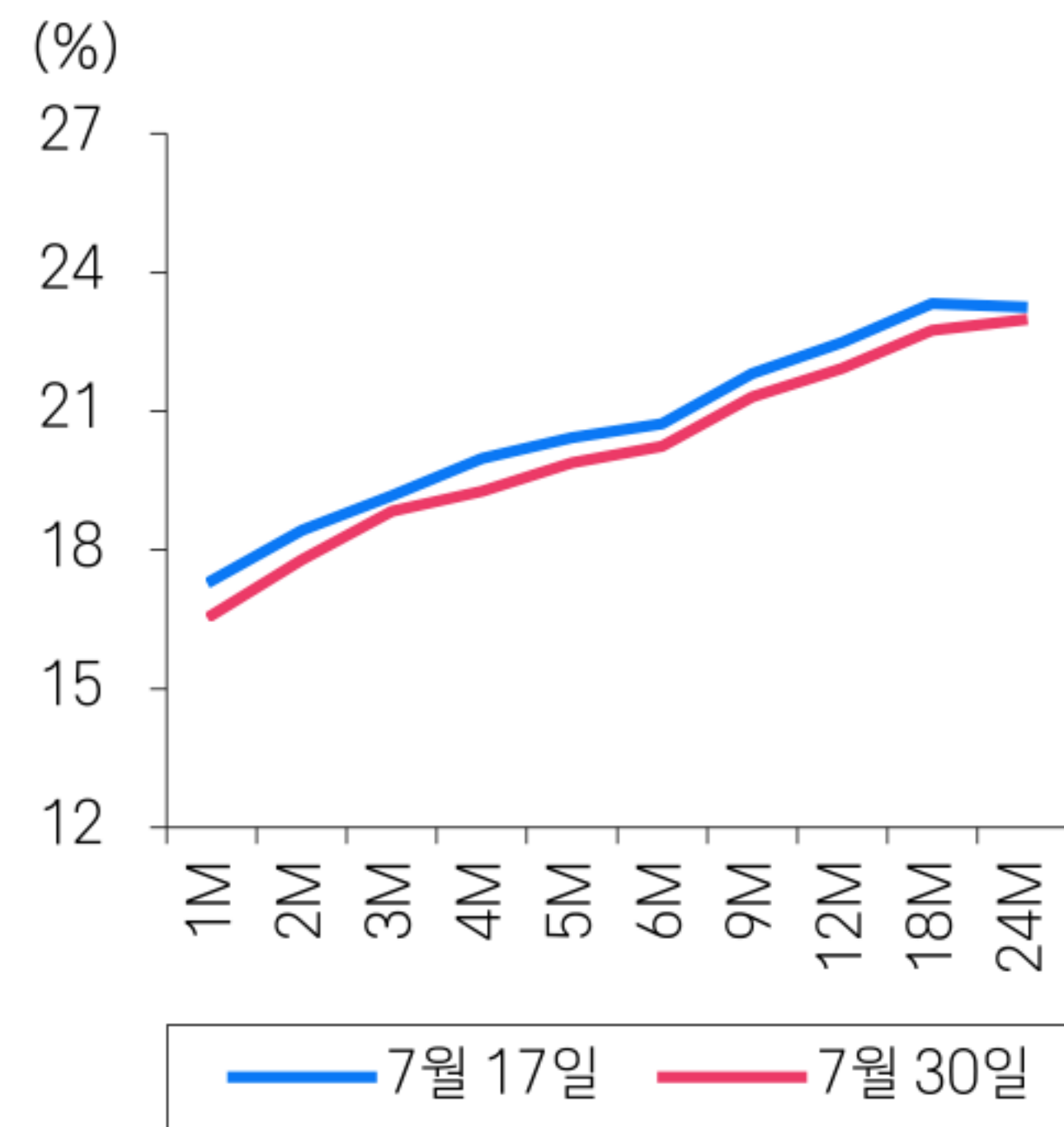
자료: CBOE, Bloomberg, 삼성증권

분산 스왑(Variance Swap) 기간구조

변동성은 낮아졌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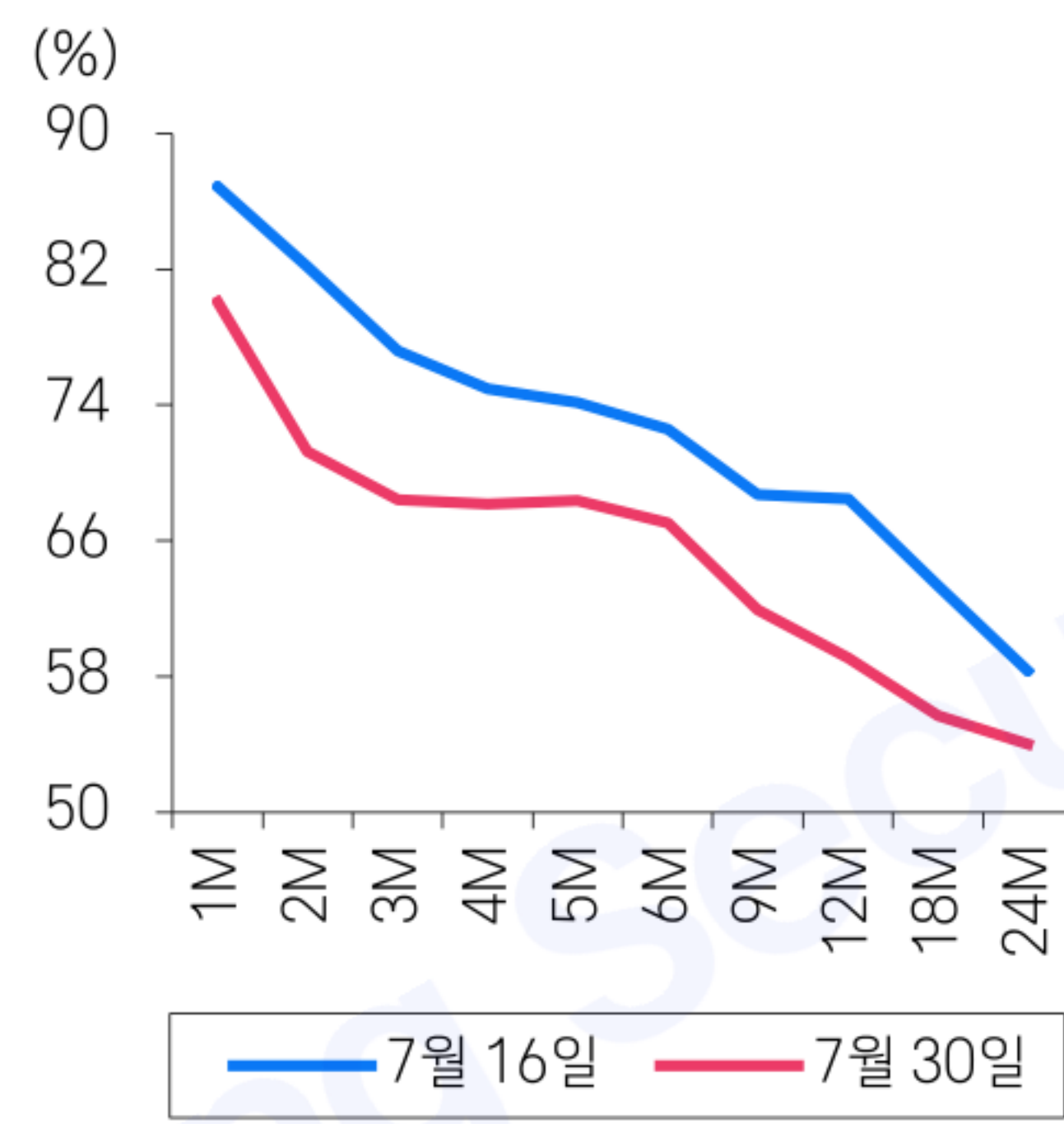
- 일본, 정부부채와 금리 상승 등으로 중장기 변동성 수준이 빠르게 높아짐
- 한국, 주식시장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분산스왑 곡선은 점진적으로 인하됨
- 유럽, 중장기 변동성의 진화
- 6월~7월의 변동성 Peak는 벗어나고 있지만 불안정한 등락구간을 통과하고 있음
- 하반기 실적에 대한 구체적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

S&P500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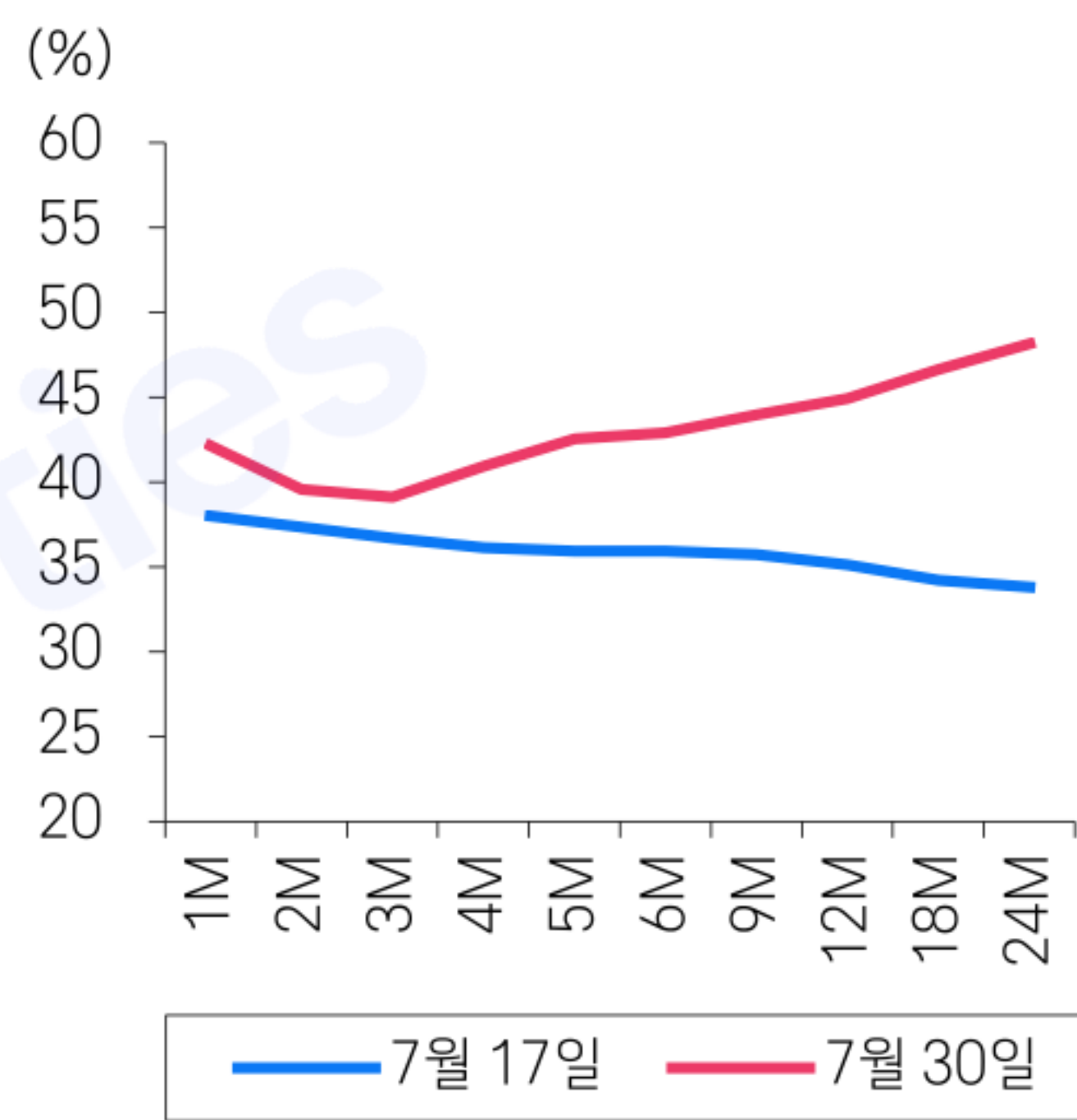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KOSPI200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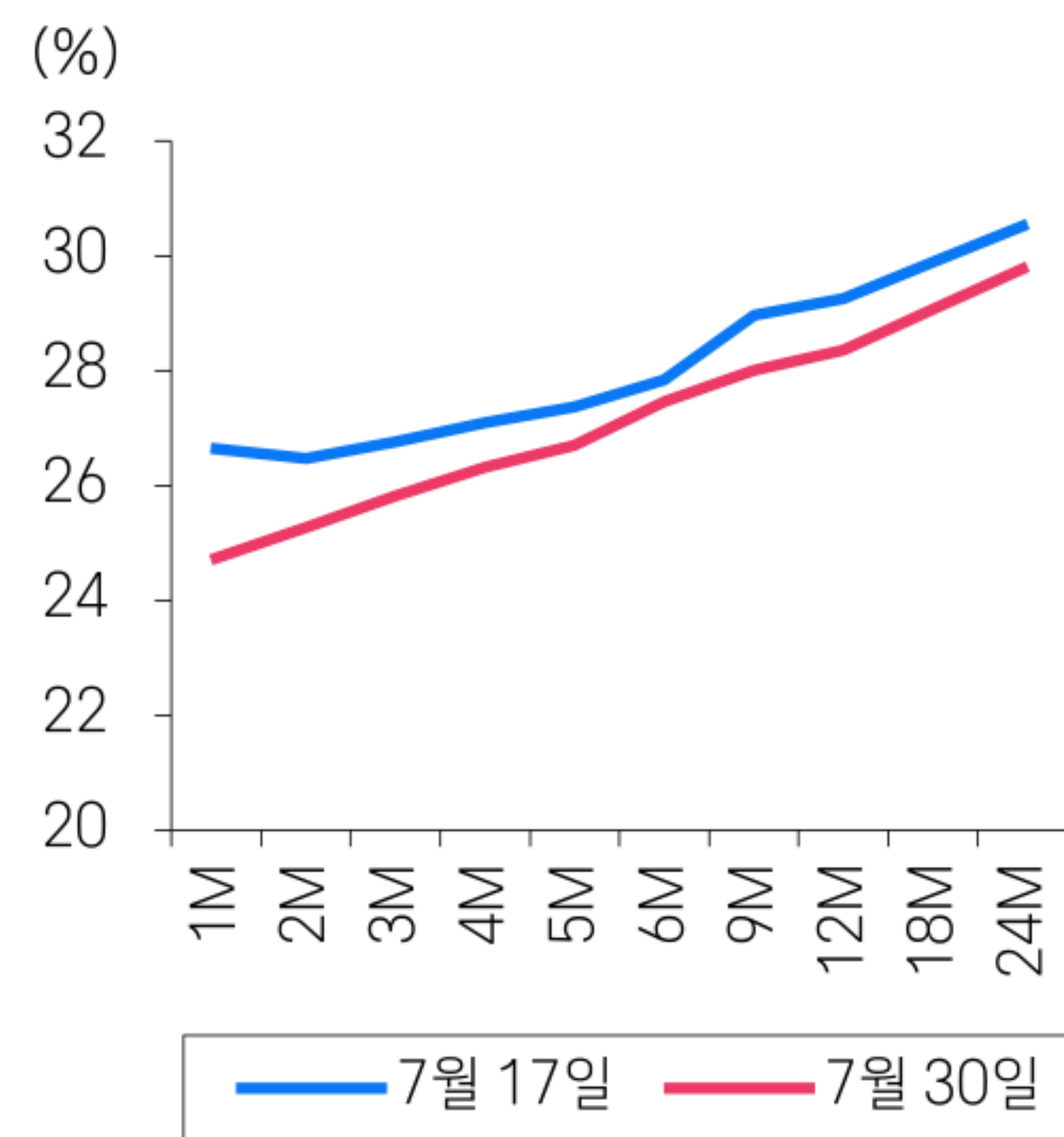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Nikkei225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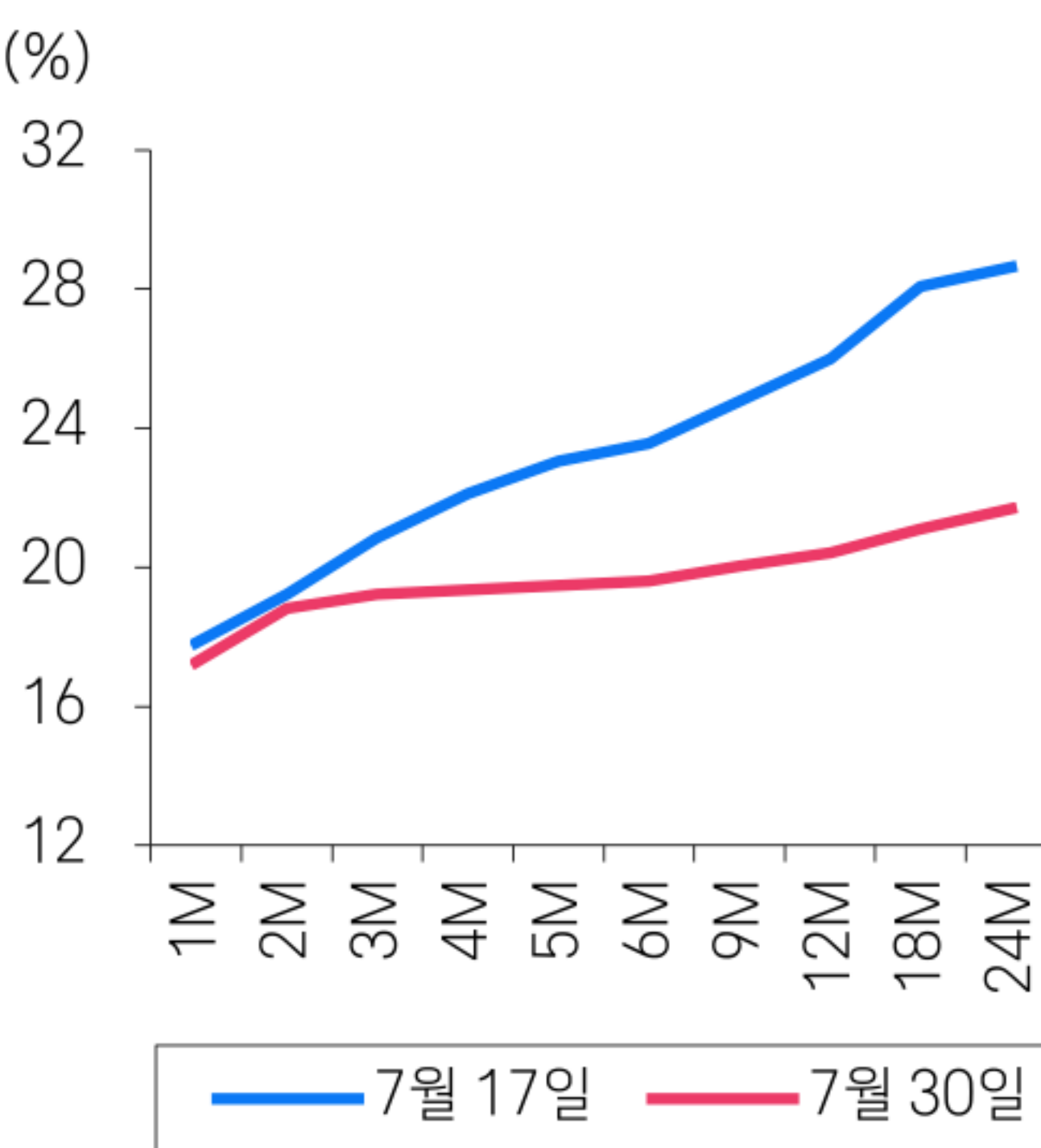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HSCEI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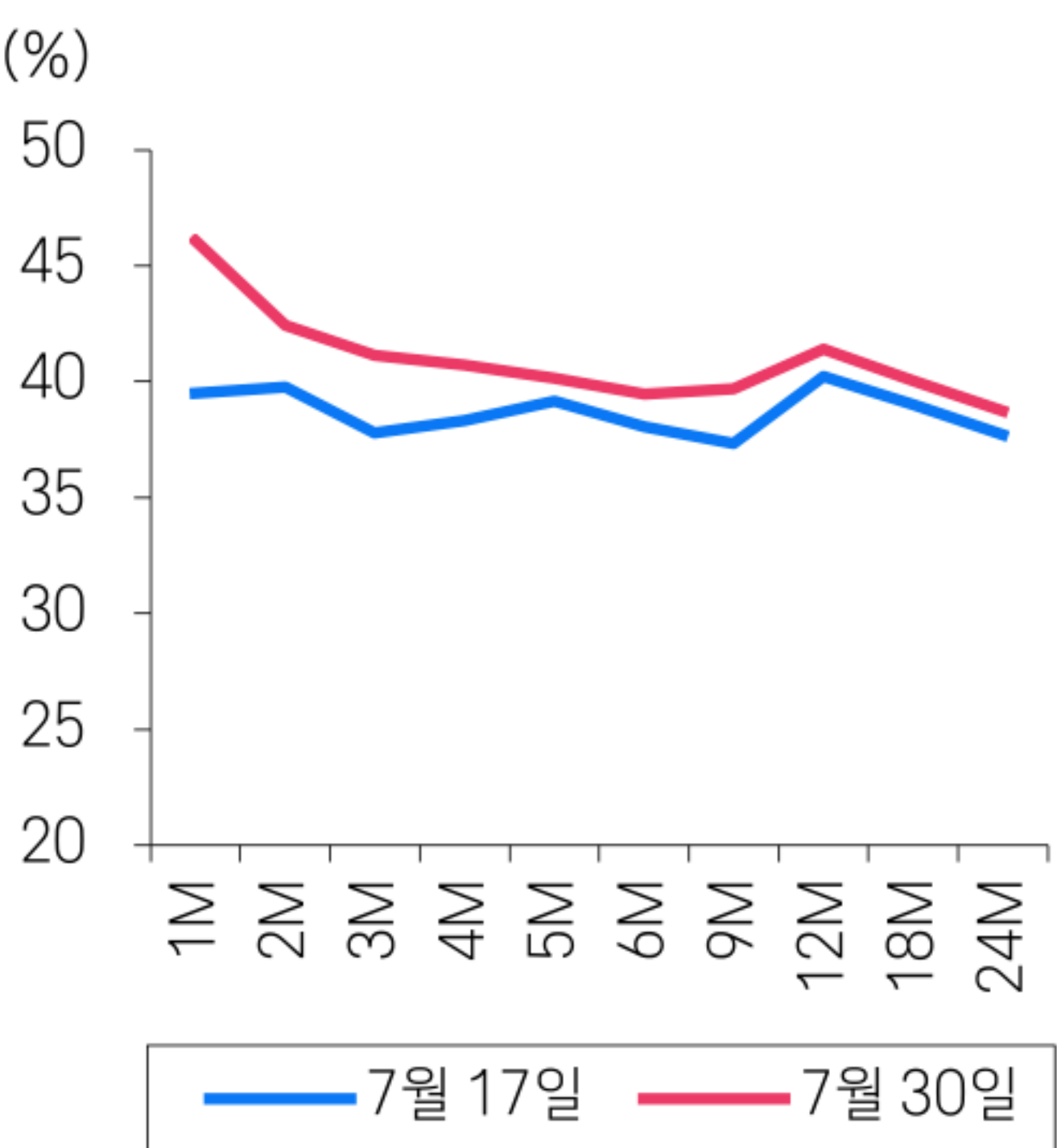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Stoxx50 Variance Swap
Term-structur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TWSE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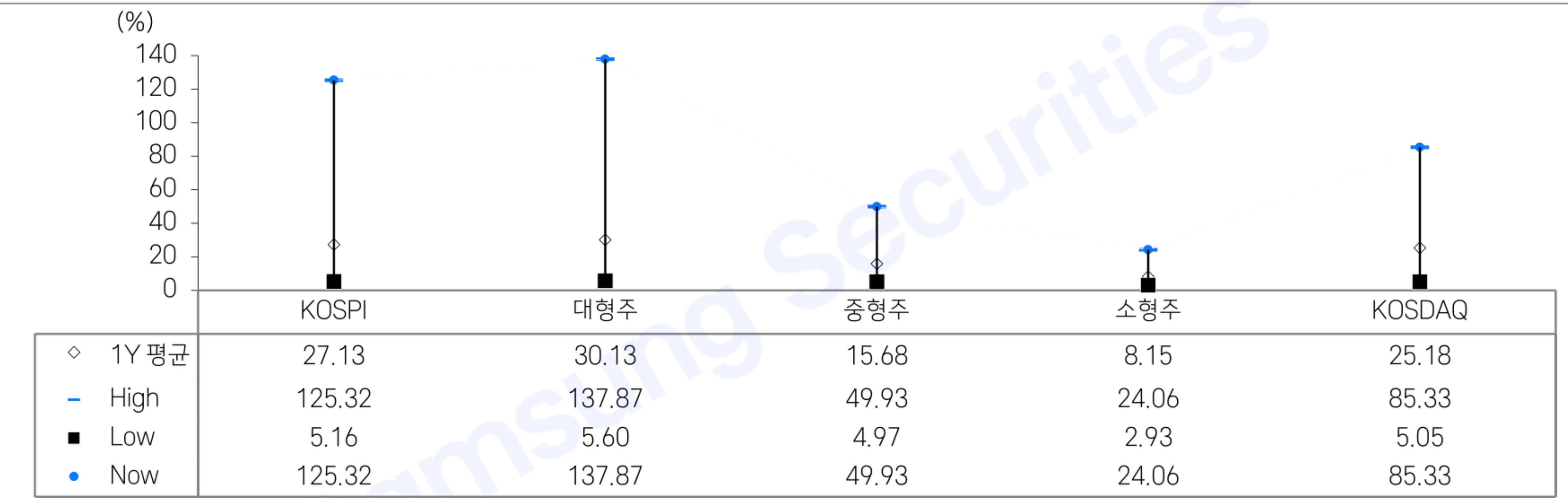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주식시장 역사적 변동성 분포

(KOSPI & KOSDAQ) 7월말까지 KOSPI 대형주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등락폭이 확대됨에 따라 KOSPI와 KOSDAQ 모두 사상 최고치의 변동성을 기록함. KOSPI 변동성 125%는 지수의 등락이 일별로 최대 ±19% 이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7월중 10%가 넘는 하락과 장중 Circuit Break 발동의 반복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의 변동성 수준이 낮지만, 대형주의 급등락에 연동하여 1년중 최고 수준의 변동성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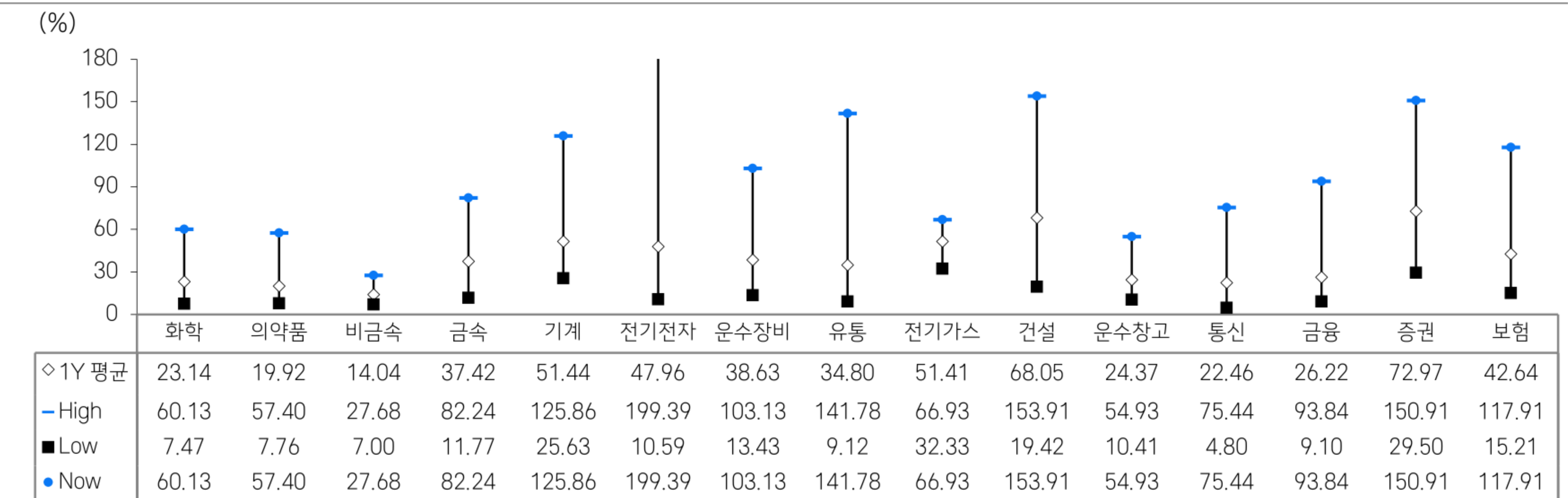
(KOSPI 산업지수) KOSPI 대형주를 선도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의 변동성 수준이 200%까지 치솟았음. 하루에 최대 ±32%까지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 수준이라는 점에서 Top2의 주가 등락이 전체 주식시장을 좌우하고 있음. 다수 업종의 변동성 수준이 100%를 상회한 것도 사상 처음있는 상황임. 모든 업종의 변동성 수준이 최근 1년중 가장 높은 상황임. 향후 주식시장의 기간조정 국면에서 변동성 하락속도가 빠른 업종별로 주가의 탄력도 강하게 나타날 것임.

KOSPI 시가총액규모지수 및 KOSDAQ 역사적 변동성 분포



참고: 일별 시/고/저/종가를 대상으로 Garman-Klass 변동성산출방식을 적용함. 60일간 변동성을 연율화함, 7월 30일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KOSPI 산업지수 역사적 변동성 분포



참고: 일별 시/고/저/종가를 대상으로 Garman-Klass 변동성산출방식을 적용함. 60일간 변동성을 연율화함, 7월 30일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주식시장 Data

- 한국 주식시장이 7월 들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높은 변동성 양상을 보임에 따라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과의 동조성이 6월말~7월초에 비해 약화되었음. 일본 주식시장 역시 미국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동조흐름이 7월초에 비해 약화되었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분출되면서 상승모멘텀이 약화되고 가격조정이 심화되는 양상임. 3분기의 가격조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2027년 상반기까지의 주식시장 흐름을 구체화할 것임.
- N일후 예상 지수대는 직전 주가 추세와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당 상황이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변동 가능한 주가패턴의 상단과 하단을 추정하는 것임. 7월말 KOSPI200의 폭등으로 가격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됨. 중앙확산형 패턴으로 반전되면서 상하단 가격예상대가 확대됨.
- 외국인, 7월말 대규모 프로그램매수 유입으로 7월월간 순매도규모는 9조원으로 축소됨. 외국인의 매도압력이 완화되면서 8월 순매수 반전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함. 사모와 연기금의 7월 주식 순매수는 주식시장 하락국면에서 주식비중 확대전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됨. 금융투자의 주식매수는 ETF 설정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지수별 기술적 지지/저항대

	KOSPI	K200
종가	6,595.45	1,046.81
피봇 2차 저항선	6,135.34	966.34
피봇 1차 저항선	5,864.45	919.41
피봇 포인트	5,705.93	891.23
피봇 1차 지지선	5,435.04	844.30
피봇 2차 지지선	5,276.52	816.12
20일중 MAX	8,620.15	1,396.54
20일중 MIN	5,262.77	8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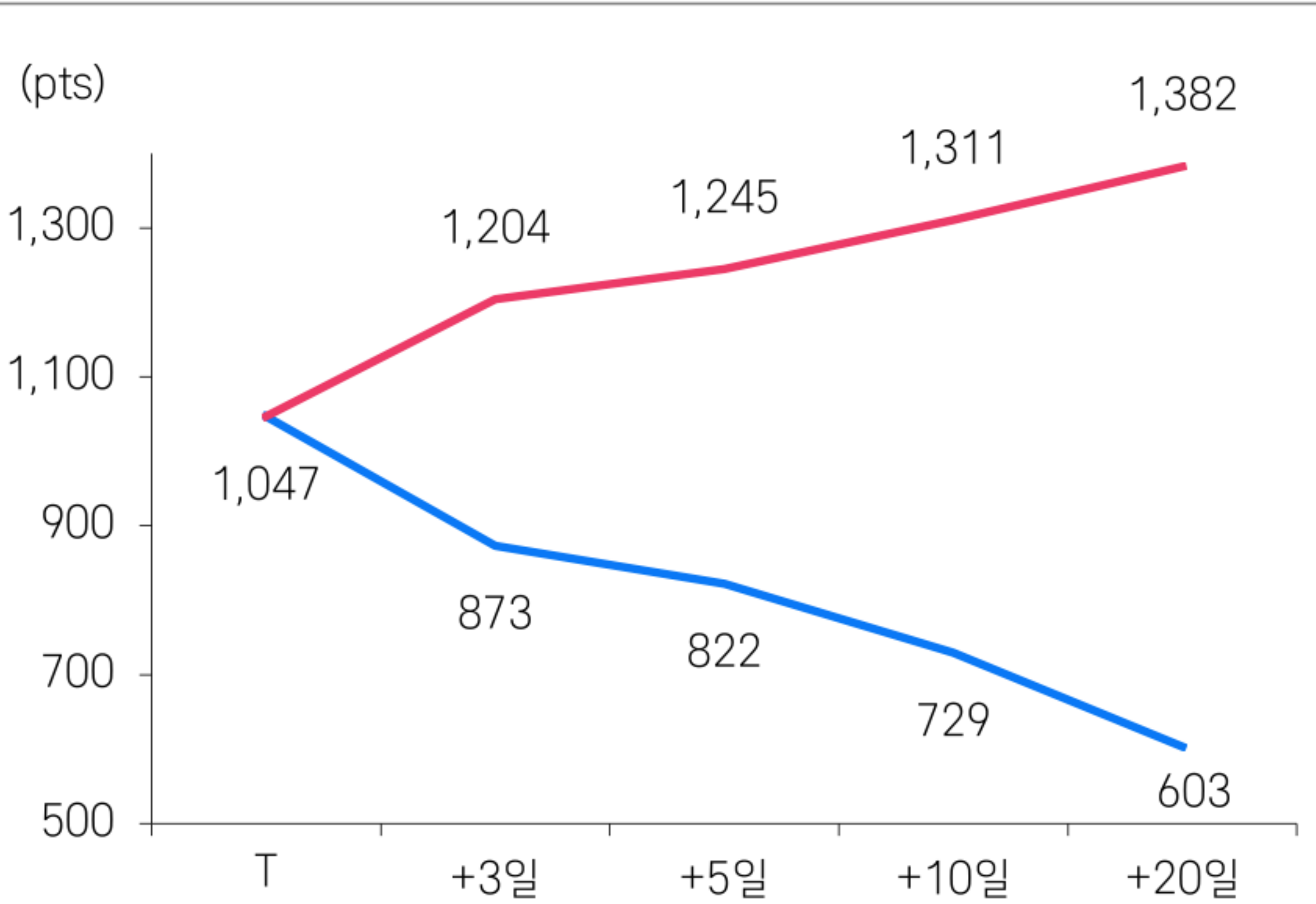
참고: 7월 31일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시장별 상관관계 분석

	KOSPI	KOSDAQ	Nasdaq	N225	중국상해	항셱
KOSPI						
KOSDAQ	0.55					
Nasdaq	0.60	0.63				
N225	0.60	-0.22	0.16			
중국상해	0.66	0.85	0.59	0.03		
항셱	-0.36	0.41	0.17	-0.79	0.11	
변동성 (%)	72.1	59.1	21.3	32.5	17.5	18.8

참고: 60일 일별 수익률의 상관계수, 변동성은 60일 수익률의 표준편차 연율화
자료: KOSCOM, 삼성증권

KOSPI200 예상 지수대 전망



참고: 지수의 변동성과 신뢰수준을 고려한 상하단 예상 지수대 전개
자료: KRX, 삼성증권

투자자별 KOSPI200주식현물 연간 순매수

(십억원)	2026년	2025년
외국인	(184,696)	(13,053)
개인	137,788	(14,993)
기타	16,052	11,425
금융투자	56,856	27,849
투신	(1,024)	(6,272)
은행	(3,395)	(3,438)
보험	(7,554)	(4,467)
연기금	(8,083)	2,056

참고: 7월 31일 현재, 투신은 사모 포함
자료: KRX, NXT, 삼성증권

프로그램매매 관련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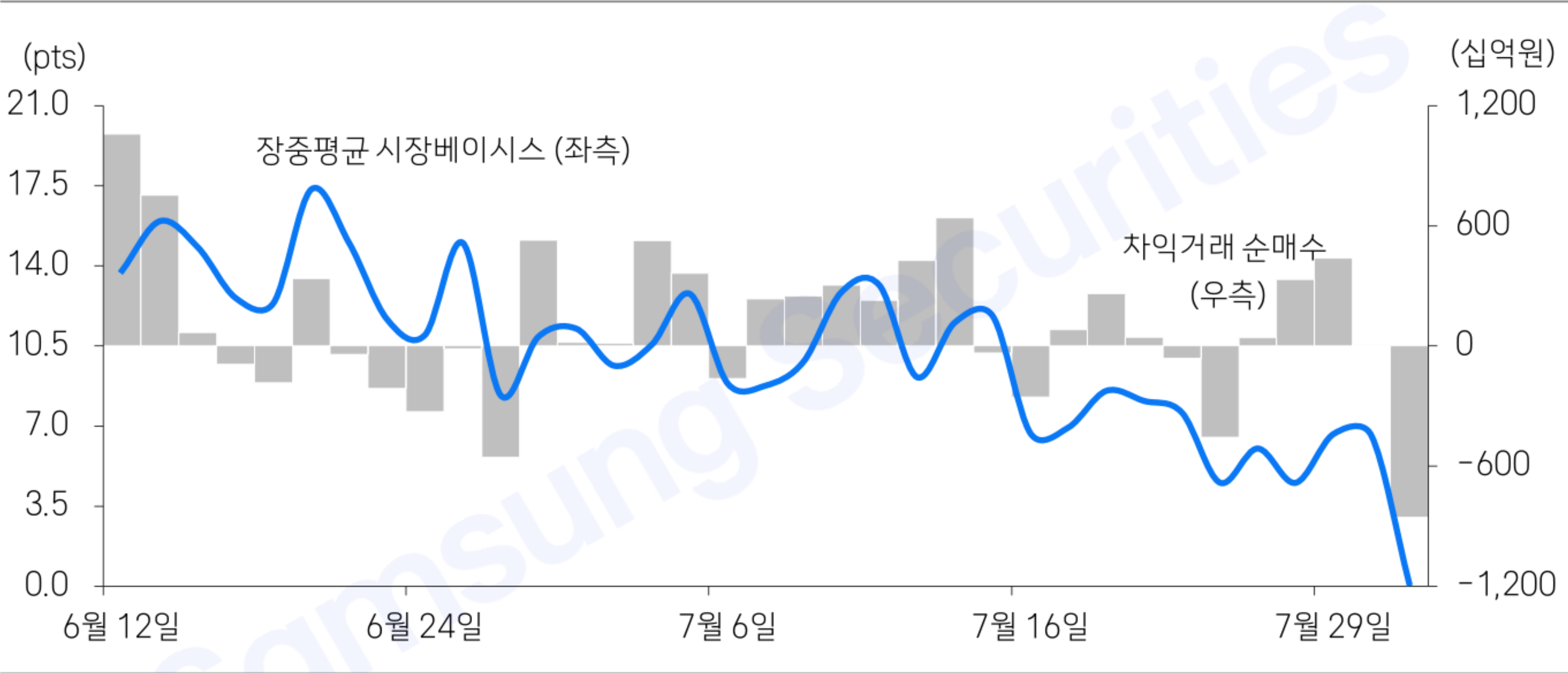
KOSPI 프로그램 매매

- 외국인, 7월말 6.2조원 비차익 순매수 기록하면서 7월 순매도 축소
- 금융투자, 7월말 현선물 상한가 차이로 선물 시장베이스스 급감을 이용한 차익매도 출회
- 연기금과 투신, 주식시장 하락국면에서 주식비중 확대
- 8월,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 반전여부 주목

KOSDAQ 프로그램 매매

- 외국인, 3개월만에 비차익 순매도 반전
- 투신, 5월에 이어 7월에도 비차익 순매도 압박 강화
- 연기금, 4개월 연속 비차익 순매도 (순매도 규모는 축소)

시장베이스스와 일별 차익거래 순매수 추이 (KOSPI200선물 최근월물)



참고: 시장베이스스는 장중평균
자료: KRX, NXT, 삼성증권

KOSPI시장 투자자별 프로그램매매 순매수

(십억원)	증권	보험	투신	연기금	외국인
차익					
'26.2월	591	0	(53)	(8)	(244)
'26.3월	(122)	(8)	(660)	6	(11)
'26.4월	1,140	0	127	42	4
'26.5월	167	(7)	(131)	1	(13)
'26.6월	(339)	0	(160)	234	52
'26.7월	3,017	(4)	(142)	(12)	562
비차익					
'26.2월	640	(975)	(87)	(545)	(14,092)
'26.3월	737	(182)	(825)	(293)	(27,831)
'26.4월	1,434	(787)	(359)	(839)	1,079
'26.5월	590	(1,618)	(1,861)	(1,267)	(31,302)
'26.6월	1,874	(875)	(2,596)	(2,061)	(43,198)
'26.7월	1,820	158	161	211	(8,686)

참고: 투신은 사모포함, 7월 31일 현재
자료: KRX, NXT, 삼성증권

KOSDAQ시장 투자자별 프로그램매매 순매수

(십억원)	증권	보험	투신	연기금	외국인
차익					
'26.2월	(98)	0	7	0	0
'26.3월	(701)	0	(4)	13	0
'26.4월	(86)	1	(1)	0	0
'26.5월	(110)	1	(6)	0	23
'26.6월	30	0	0	30	0
'26.7월	25	0	0	0	0
비차익					
'26.2월	5	(69)	100	(69)	566
'26.3월	101	11	(277)	4	319
'26.4월	37	(52)	69	(49)	(912)
'26.5월	(16)	(76)	(430)	(91)	2,412
'26.6월	(78)	(43)	65	(35)	741
'26.7월	34	(11)	(318)	(11)	(289)

참고: 투신은 사모포함, 7월 31일 현재
자료: KRX, NXT,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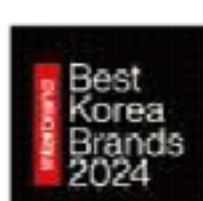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